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를 중심으로-

Consumer's practicality, acknowledgement, trust, satisfaction, necessity degrees about food nutrition labeling system

이경옥 · 김영숙*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외래교수 ·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교수

Lee, Kyoung-Ok · Kim, Young-Sook

Dept. of Human Ecology, Kyungsoong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undertakes an examination of nutrition labelling system and offers a strategic framework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Korean context. Thus this study includes a review of Korean current nutrition labelling system (NLS), development of a strategy or a further study for its revision of NLS, and a suggestion of revised nutrition labelling guidelines. Participants were 600 university students in Busan and were asked to fill in a questionnaire. The data collected were processed with the SPSS statistical program to produce its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ith One-Way Anova and Duncan Tes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the levels of consumer's practical use and awareness of NLS are low, the levels of their trust and satisfaction and their necessity for NLS are low too. Consequently, the consumer's attitudes to NLS are not related to nutrition labelling method(? system).

Key Words : nutrition labelling system. trust, consumer's practical use

I. 서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식품의 선택에 있어서 맛과 영양,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으며(Porter & Earl, 1990: 노영화 2000에서 재인용) 이러한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한 부응과 식품의 제조·가공 기술 발달, 그리고 국제간 교역 활성화에 의한 수입 식품의 대량 유통에 따라 소비자는 다양한 식품을 접하게 되었으나 이는 현명한 식품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식품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존 및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화이므로 생산, 유통, 보관상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식생활 형태는 단순히 안전성만을 추구하던 과거와는 달리 간편성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여 반 조리 혹은 완전조리 식품, 한 끼용 제품

등과 같이 가공 및 포장정도가 큰 제품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생산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며(이강자, 이윤희, 2004)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가 가진 정보와 소비자가 가진 정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Garretson & Burton, 2001)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적절한 식품 선택과 구매를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자들의 자발적인 정보표시와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을 통해 소비자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Golan & Mitchell, 2001).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식품의 영양표시제도란 제품에 함유된 영양적 가치를 정해진 기준과 규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강제화한 제도이다. 그러나 식품 표시 기준이 이상적으로 설정되고 각 식품 업체가 이를 잘 준수하는 것만으로 소비자가 자신의

* Corresponding author: Kim, Young-Sook
Tel: 051) 620-4653, Fax: 051) 611-2448
E-mail: yskim@ks.ac.kr

영양적 요구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유익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양지식과 선택 요령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소비자 자신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오혜숙, 1998). 그러므로 올바른 식품 영양표시 제도의 관리 및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식품 구입 시 영양표시정보의 활용도와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자료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영양표시 제도를 수정, 보완하고 우리의 영양적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이 전반적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품 영양 표시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장순옥, 1993; Kim et al, 1999; 이주연, 2001) 주부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동이나 대학생,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동이나 노인들은 정보탐색 능력이 너무 떨어져 정확한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식품영양표시제도의 본 취지가 우리 사회에 바르게 정착되고 이를 기초한 올바른 식품 소비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래 소비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식품영양표시제도를 정착시키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활용도와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식품의 영양표시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관련연구고찰

1. 표시의 의미

우리나라 공정거래 지침을 보면 표시는 사업자가 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 규격, 기타의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상품이나 이의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된 표시 판에 부착하여 기재한 문자나 도형 및 포장 그 자체를 말한다.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해 구입하고 조리 가공, 보존할 때 제 몫을 하는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서 식품 표시는 식품 라벨과 식품표시로 구분될 수 있다. 식품 라벨은 설명, 인쇄 등의 방법으로 식품 용기에 혹은 부착된 꼬리표, 상표, 그림, 마크 또는 설명하는 일체의

것을 의미한다. 식품 표시는 식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 라벨에 나타내거나 식품 가까이에 전시된 모든 설명, 인쇄, 그래픽된 것을 의미한다(이주연, 2001).

식품 표시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일차적인 도구로서 표시를 통하여 소비자는 제공된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게 되며 생산자는 표시를 통하여 제품의 성질이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할 표현을 금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일정한 기준을 제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각각의 법률에 의해 표시 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공기법 외3인, 2002)

2. 식품영양표시제도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하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영양정보 표시와 영양소 함량강조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식품 영양표시 기준이 식품위생법에만 사용되어 식품 제조업자 관리 측면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소비자 보호가 미비한 실정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임의 표시제도로써 영양소를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만 기준을 준수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특수 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그 외 영양소 함량강조 표시를 한 제품과 영양소함량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대상으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과 같은 필수 영양소와 강조 표시된 영양소의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식품 위생법에 의하면 영양성분 표시제도는 영양소함량표시, 영양소함량강조표시, 건강강조표시로 나눌 수 있다. 영양소함량표시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 함량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일정 기준에 따라 표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영양소 함량강조표시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소 함량을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강조하는 표현으로 서술적 강조표시라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로는 무, 저, 고, 강조, 강화, 첨가 등이 있다. 건강강조표시는 식품표지나 표시 상에 식품의 영양소와 질병 또는 건강과 관련된 증상과의 관계를 표현한 강조표시를 말한다(이희정, 1999).

외국의 경우를 보면 주요 선진국들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표시제도를 널리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영양개선법, 농림물자규격 및 품질표시법 등 다양한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다양한

품질표시 제도를 바탕으로 소비자 중심적인 표시 관리를 하고 있다(Kim et al, 1999). 영양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는 식품에 특정 영양성분이 강화되었거나 특별 용도에 따라 유아용, 환자용에 적합하다고 표시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수영양표시제도와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을 보증하는 JSD 마크 등 건강 영양식품협회에서 발행하는 가공식품영양표시가 있다(이강자, 이윤희, 2004).

3. 관련 연구 고찰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활용도와 관련한 연구를 보면 임현슬, 김향숙(1997)의 연구에서 각 식품군별로 유가공품류 구입시 확인 정도가 5점 척도에서 4.59로 나왔고 청량음료의 확인 정도가 3.15로 가장 낮았다. 식품 표시사항을 읽는 이유는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95.8%로 가장 높았다. 장남수(1997)의 연구를 보면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표시를 읽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식품 표시를 읽는다는 응답율에는 여성이 87.8%, 남성이 73.7%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구매를 더 많이 담당하고 있는 여성의 응답율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순옥(2000)에서는 영양소 조절 가공 식품의 구입시 영양소 함량표시를 읽는 빈도에 대해서는 우유와 주스가 5점 척도에서 2.96과 2.99로 각각 나타났으며 섬유소와 키토산이 2.5와 2.68로 나타났다. Eldridge A.L. Sheehan E.T.(1994)와 Worsley H. Crawford D.(1987)의 연구인 20대 중반의 젊은 미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행해진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영양정보 출처가 가족(68.7%), 친구(63.6%), 신문/잡지(66.5%), 서적(64.3%), 건강식품판매소(35.3%), TV/Radio(46.4%), 슈퍼마켓(31.9%)으로 건강 전문인보다 대중매체를 영양정보원으로 더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Cardelo et al;2000) 이보다 조금 높은 75% 정도의 인지율을 보이고 있다. 국산식품의 경우 총열량, 칼슘, 총단백질량, 비타민C의 순으로 주의 깊게 성분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입식품의 경우는 총열량, 총콜레스테롤, 총지방량, 칼슘, 총 단백질량의 순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의 경우 박혜련과 민영희(1995)의 경우 조사 대상자의 69.2%가 식품 구입시 식품표시를 확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임현슬 외(1996)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식품영양표시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가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자의 57.8%가 모른다고 대답하였고, 27.4%는 안다고 대답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식품에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식품(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에서만 선택사항으로 되어있으나 많은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장순옥(2000)의 경우 영양지식이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4.32로 나타났으며 '특정식품을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설문에는 남성(27.0%)이 여성(16.9%)보다 높은 동의율을 보여 성별 차이가 유의적(P=0.035)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경향은 Crutchfield & Variyan(2001)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난 적이 있다.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이해정도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박혜련과 민영희(1995), Arset et al(2004)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는 경우에 표시내용을 이해하는 정도가 높았다고 하였으나 임현슬 외(1996)의 경우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순옥(2000)의 연구에서는 특히 % RDA 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도가 가장 떨어졌다. 그리고 영양지식이 높은 사람이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체격지수와 식습관의 관계를 살펴본 Lee Y.N. & Choi H.M.(1994)의 연구에 따르면(장순옥, 2000에서 재인용) 여대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여대생도 남학생에 비하여 식품영양표시를 더 많이 확인하고 식생활에 활용하고 있다는 Marietta AB·Welshimer KJ·Anderson S.L.(1999)의 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필요도와 관련한 연구를 보면 장순옥(2000)의 식품영양표시가 가지는 정보원으로서의 중요도에 대한 연구를 보면 5점 척도에서 2.90으로 나타났으며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도를 연구한 임현슬, 김향숙(1997)의 경우 연구 대상자의 9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영양표시제도 시행 시 원하는 표기 방법으로는 영양소별 함량 표시, 특정 영양성분의 첨가 및 삭제, 1일 권장량별 %, 건강과 관련된 강조표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Russo(1986)등은 소비자는 모든 정보가 합성, 가공되어 만들어진 포괄적 정보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정보처리 노력의 절감이 정보 제공의 지침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양소함량표시, 특히 최근 미국의 영양정보(Nutrition Fact)는 소비자 정보의 과부하로 인하여 그 효용성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여 포괄적 요약지표(summary rating), 즉 영양질지표(nutritional quality index : NQI)등이 일반 소비자에게 유용할 수 있다.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에 대한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으나 이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심리적 변인으로서 식품영양표시의 활용도를 올리고 식품영양표시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변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을 포함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수준(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은 어떠한가?

둘째, 식품영양표시방법(영양소함량강조표시, 영양정보표시, 건강강조표시)에 따라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수준(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은 어떠한가?

셋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수준(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에 차이가 나는가?

2. 연구방법

조사방법은 미래의 소비 주역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배포를 통한 자계식 응답의 형태를 이용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식품영양표시방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에 대한 설문으로 이 구분 되어 있다. 조사 시기는 2005년 12월 1일에서 10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12월 15일에서 12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산시 소재 대학교의 7개 단과대학 600명의 학생들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71부가 통계에 사용되었다. 통계처리는 SPSS PC+(version 11)를 이용하였으며 빈도분석을 통해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구한 뒤 변수들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분산분석을 통한 평균차이검증과 하위 집단 간 평균차이검증을 위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전공의 경우 공학이 20%로 가장 많았으나 인문, 자연, 생활과학도 20%에 조금 못 미치는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성별은 여학생이 60%로 더 많았으며 거주형태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71

변인		N(%)	변인		N(%)
전공 (N=566)	인문	102 (17.9)	거주형태 (N=569)	부모와 함께 거주	497 (87.3)
	자연	101 (17.8)		혼자 거주	41 (7.2)
	생과	104 (18.3)		친구와 거주	8 (1.4)
	상경	57 (10.0)		형제자매와 거주	14 (2.5)
	법정	38 (6.7)		친척 집에 거주	7 (1.2)
	예술·체육	47 (8.3)		기타	2 (0.4)
	공학	117 (20.6)		체중범위 (N=567)	50kg미만
성별 (N=568)	남자	227 (40.0)	50kg이상~54kg미만		126 (22.2)
	여자	341 (60.0)	55kg이상~59kg미만		59 (10.4)
학년 (N=569)	1	111 (19.5)	60kg이상~64kg미만		50 (8.8)
	2	175 (30.8)	65kg이상~69kg미만		53 (9.3)
	3	174 (30.6)	70kg이상~74kg미만		57 (10.1)
	4	109 (19.2)	75kg이상~79kg미만		41 (7.2)
키 (N=560)	160미만	63 (11.3)	80kg이상	24 (4.2)	
	160이상~165미만	130 (23.2)	체형	매우마른편이다	16 (2.8)
	165이상~170미만	137 (24.5)		다소 마른편이다	(17.6)
	170이상~175미만	191 (34.1)		표준체형 범주이다	(51.0)
	175이상~180미만	30 (5.4)		다소 통통한 편이다	(26.6)
	180이상	9 (1.6)		매우 통통한 편이다	(1.9)

경우가 8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체중은 50kg 미만이 27.7%로 가장 많았으나 이는 대부분이 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80kg이상도 4.2%나 차지하고 있었다. 학년은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30% 내외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키는 170이상 175미만인 경우가 34.1%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2. 연구문제 분석 결과

1)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식수준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식수준을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점 리커트를 통해 살펴본 결과 식품 구입 시 식품영양표시를 얼마나 이용하는가? 하는 활용도는 평균 3.13, 식품영양표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인지도는 평균 2.76, 식품영양표시에 적혀있는 정보를 얼마나 믿는가? 하는 신뢰도는 평균 2.87, 식품영양표시가 정보제공 수단으로써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하는 만족도는 평균 2.72, 식품영양표시가 합리적인 식품구매를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필요도는 평균 3.69로 나타났다. 즉 식품영양표시의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이들 각각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활용도

대학생들의 식품영양표시 활용 관련 기능을 알아본 결과 식품 구매 시 확인하는 표시 내용에는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량만 제외하고 전부 3점 이하의 평균을 보였다. 식품 종류별로 식품표시 이용 정도를 알아본 결과 육가공품류를 구입할 때 가장 신경 써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 및 빵류, 육가공품류, 면류, 즉석조미식품류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3점 이하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영양소별로 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정도를 알아본 결과 열량과 지방의 정도를 확인하는 경우만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모두 3점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강화식품별 구매 시 표시 이용 정도는 대체로 3점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식품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3.94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이 나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3.25, 영양정보를 얻기 위해서 3.17, 타제품과 비

<표 2>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식수준

	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
평균	3.13	2.76	2.87	2.72	3.69
표준편차	0.93	0.89	0.79	0.77	0.96

<표 3>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각 영역별 활용도

		변인	M	SD			변인	M	SD
식품 표시 정도 별	확인	유통기한	4.18	0.863	영양 주 의 관 심 소 별	열량	3.40	1.117	
		제조일자	3.52	1.031		탄수화물 함유량	2.91	1.016	
		원산지	2.97	0.999		지방 함유량	3.19	1.158	
		원재료	2.75	0.971		단백질 함유량	2.87	1.041	
		보관요령	2.93	0.984		철분 함유량	2.77	0.966	
		영양성분	2.90	0.999		칼슘 함유량	2.88	0.994	
		내용량	3.06	1.021		비타민 함유량	2.95	1.047	
		제조업체명 및 소재지	2.66	0.999		콜레스테롤 함유량	2.79	1.061	
		반품 및 교환	2.61	1.057		섬유소 함유량	2.63	1.011	
식품 표시 종 류 별	이용도	육가공품류	3.57	1.088	강 화 표 시 이 용 도 별	당분 함유량	2.71	0.995	
		육가공품류	3.38	1.032		DHA 함유량	2.64	0.983	
		과자류 및 빵류	3.48	1.051		무가당음료	3.33	1.015	
		면류	3.13	1.038		저지방식품	3.39	1.085	
		청량음료류	2.89	1.058		칼슘강화식품	3.31	0.964	
		시리얼류	2.92	0.977		비타민강화식품	3.39	0.986	
		즉석조미식품류	3.06	1.158		섬유소강화식품	2.98	0.986	
		식용유지류	2.64	1.030		DHA강화식품	2.93	0.951	

교하기 위해서 3.06, 순이었으며 나머지 체중조절을 위해서가 2.97, 새로운 제품 구입을 위해서가 2.96으로 3점 이하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식품영양표시를 잘 확인하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식품영양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아서가 3.9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식품영양표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54, 식품영양표시가 이해되지 않아서가 3.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영양표시를 믿을 수 없어서는 2.17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2) 인지도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지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5문항을 만들어 O, X를 물어본 결과 평균 정답율은 5문항 중 2.4문항으로 나타나 50% 이하의 정답율을 보였다. 식품영양표시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일반적인 인지도가 5점 리커트에 평균 2.76으로 나온 것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양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식 수준은 여섯 문항 중 평균 3.21문항으로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지식보다는 조금 나은 점수이지만 여전히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3) 신뢰도

식품영양표시에 있는 정보를 얼마나 믿고 있느냐하는 질문에 평균 2.87이 나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의 2점과 그저 그렇다의 3점 사이에 위치하는 점수가 나왔다. 이는 불신하는 정도가 신뢰하는 정도보다 약간 많은 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1점과 2점에 체크한

응답자를 상대로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유 기술하게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업자의 부도덕한 상술로 인한 허위광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만족도

부작용을 없애고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실시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위한 제고방안은 각 문항별로 5점 리커트 형식으로 물어본 결과 기업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항이 4.15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소비자의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 3.93, 영양정보표시에 대한 계몽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3.93,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활용능력을 키워야 한다 3.89, 관리규정의 완비 및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3.86, 담당공무원의 인력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3.49순으로 나타났다.

(5) 필요도

식품영양표시제도의 필요성을 식품영양표시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정도를 평가하게 한 결과, 전 항목이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대학생들은 식품영양표시제도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식품영양표시를 통해 영양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효과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의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점을 가장 낮은 효과로 두고 있었다.

다음으로 식품영양표시제도의 확대실시에 대한 의견으로는 반대하는 견해가 21명으로 3.9%에 불과하였으며 찬성하는 견해가 354명으로 62.2%를 차지하여 과반수 이상

<표 4>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지식 정도

N=571

식품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지식	정답자수	정답율	정답
1. 한국의 영양성분 의무표시 항목은 열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의 5개 항목이다	416	74.7%	X
2. 우리나라는 일반식품에 건강강조표시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209	37.5%	X
3. 영양권장량 표시는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해서만 표시하도록 한다	136	24.4%	X
4. 식품의 유형은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56	28.0%	X
5. 원재료를 표시할 때에는 주원료의 원료명을 우선 표기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네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436	78.4%	X
평 균 점 수 (표준편차)	2.435(1.014)		
영양에 대한 지식	정답자수	정답율	정답
1. 철분이 결핍되면 빈혈을 일으킨다	532	94.3%	O
2. 지방은 1그램당 4칼로리의 열량을 낸다	388	68.9%	X
3. 칼슘은 뼈와 치아를 형성하고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549	97.2%	O
4. 무기질은 근육, 피부, 모발 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303	53.8%	X
5. 리보플라빈은 결핍되면 설염에 걸리기 쉽다	279	50.6%	X
6. 알콜 1그램 섭취량은 9칼로리의 열량을 낸다	216	39.0%	X
평 균 점 수 (표준편차)	3.21 (1.011)		

<표 5> 식품영양표시제도가 필요한 이유

변인	M	SD
다른 경쟁사 제품과 쉽게 비교할 수 있다	3.23	0.915
자신의 건강상태에 맞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	3.50	0.925
제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55	0.876
영양정보를 얻을 수 있다	3.64	0.856
다양한 식품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3.05	0.892
업체들의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19	0.981
식품 업계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21	0.946
투명한 제품 정보 공개가 가능해 진다	3.45	0.991
식품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3.60	0.970

의 많은 사람이 식품영양표시제도 확대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대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3년 이내가 가장 많은 비율의 응답을 보였다. 식품영양표시제도 확대 실시로 인한 가격 상승분 지불 의사를 물어본 결과 별로 지불 의사가 없다가 3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으며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가격은 1% 미만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로 볼 때 대학생 소비자들은 영양표시제의 확대 실시를 바라지만 그러한 가격 상승분을 지불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식품영양표시방법별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식 수준

식품영양표시는 현재 3가지 방법으로 표시되고 있다.

첫째, 영양소함량강조표시는 다른 식품과 비교하여 포함된 영양소가 조절되었다는 것을 식품에 무, 저, 고, 강화, 첨가, 포함, 함유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하며 둘째, 영양정보표시는 제품이 갖는 영양소의 종류와 제품의 일 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 등을 표시하는 방법을 말 하며, 셋째 건강강조표시는 식품의 질병 또는 건강과 관련된 상태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의 건강효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 방법이다. 이러한 세가지 표시 방법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해주고 각 표시방법별로 의식 수준을 알아본 결과 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 모두 영양정보표시 방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건강강조표시가 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볼 때 대학생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식품영양표시

<표 6> 식품영양표시제도의 확대실시와 비용부담에 대한 의견

변인		N(%)	변인		N(%)
확대 실시 N=569	매우 반대	9 (1.6)	지불 가격 N=162	3%미만의 가격상승	48(29.6)
	다소 반대	13 (2.3)		5%미만의 가격상승	32(19.8)
	잘 모르겠다	193(33.9)		10%미만의 가격상승	13 (8.0)
	다소 찬성	250(43.9)		15%미만의 가격상승	2 (1.2)
	매우 찬성	104(18.3)			
지불 의사 N=569	전혀 지불의사가 없다	89(15.6)	실시 시기 N=553	1년 이내	131(23.7)
	별로 지불의사가 없다	200(35.1)		2년 이내	131(23.7)
	잘 모르겠다	156(27.4)		3년 이내	152(27.5)
	다소 지불의사가 있다	107(18.8)		5년 이내	89(16.1)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	17 (3.0)		7년 이내	19 (3.4)
				10년 이내	15 (2.7)
	1% 미만의 가격상승	67(41.4)		10년 이후	16 (2.9)

<표 7> 식품영양표시방법별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식수준

	영양소함량강조표시 평균(표준편차)	영양정보표시 평균(표준편차)	건강강조표시 평균(표준편차)
활용도	3.13(1.01)	3.18(1.00)	3.09(1.00)
인지도	2.72(1.04)	2.99(1.05)	2.58(0.96)
신뢰도	2.86(0.87)	2.94(0.86)	2.79(0.86)
만족도	2.73(0.84)	2.75(0.84)	2.68(0.86)
필요도	3.64(1.03)	3.77(1.03)	3.64(1.04)
총점(평균)	15.08(3.016)	15.63(3.126)	14.8(2.96)

방법은 영양정보표시임을 알 수 있다.

3)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수준

앞서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수준을 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각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인식 정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평균차이분석을 하였으며 F값에 유의성이 나타난 변인에 대해서는 던칸 테스트를 하여 각 하위영역별로 평균차이를 알아보았다.

(1) 활용도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활용도의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와 성별에 따라 활용도 점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각 하위영역별로 평균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8>의 연구결과를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활용도에 차이가 나는지 평균차이검증을 해본 결과 F값이 11.632로 유의수준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

<표 8> 식품영양표시의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활용도			
		M	SD	Duncan	F값
건강관심	관심이 전혀 없다	2.750	0.624	a	11.632***
	관심이 없는 편이다	2.698	0.735	a	
	잘 모르겠다	2.965	0.601	b	
	관심이 있는 편이다	3.147	0.595	b	
	관심이 매우 많다	3.567	0.692	c	
성별	남	2.933	0.935	a	16.649***
	여	3.263	0.915	b	

* $p<0.05$ ** $p<0.01$ *** $p<0.001$

으로 나타났으며 던칸 검증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식품영양표시의 활용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인지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인지도의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공과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학년에 따라 인지도 점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각 하위영역별로 평균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9>의 연구결과를 보면 전공에 따른 인지도의 평균차이검증 결과 F값이 2.984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생활과학계열의 학생들만 다른 전공에 비해 유의미하게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인지도에 차이가 나는지 평균차이검증을 해본 결과 F값이 2.679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던칸 검증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식품영양표시의 인지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년에 따라라도 식품영양표시의 인지도가 차이가 났으며 평균차이검증결과 F값이 7.205로 유의수준 $P<0.001$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던칸 검

<표 9> 식품영양표시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M	SD	Duncan	F값
전공	인문계열	2.63	1.73	a	2.984**
	자연계열	2.64	1.35	a.	
	상경계열	2.67	1.37	a	
	법정계열	2.71	1.67	a	
	공학계열	2.73	1.06	a	
	예체능계열	2.77	1.23	a	
	생활과학계열	3.33	1.28	b	
건강관심	관심이 전혀 없다	2.503	0.624	a.	2.679**
	관심이 없는 편이다	2.730	0.735	b	
	잘 모르겠다	2.740	0.601	b	
	관심이 있는 편이다	2.745	0.595	b	
	관심이 매우 많다	2.965	0.692	c	
학년	1학년	2.469	0.673	a	7.205***
	2학년	2.745	0.635	b	
	3학년	2.823	0.637	b	
	4학년	3.000	0.767	c	

* p<0.05 ** p<0.01 *** p<0.001

중결과 학년이 높을수록 식품영양표시의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신뢰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신뢰도의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신뢰도 점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의 연구결과를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인지도에 차이가 나는지 평균차이검증을 해본 결과 F값이 3.006으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던칸 검증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관심한 사람은 영양표시에 대한 요구 수준과 기대치가 낮으므로 무조건적으로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4)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만족도의 평균차이를 알아

<표 10> 식품영양표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M	SD	Duncan	F값
건강관심	관심이 전혀 없다	3.140	0.624	b	3.006**
	관심이 없는 편이다	2.941	0.735	a	
	잘 모르겠다	2.923	0.601	a	
	관심이 있는 편이다	2.830	0.595	a	
	관심이 매우 많다	2.685	0.692	a	

* p<0.05 ** p<0.01 *** p<0.001

<표 11> 식품영양표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M	SD	Duncan	F값
건강관심	관심이 전혀 없다	3.000	0.624	b	2.813*
	관심이 없는 편이다	2.766	0.735	a	
	잘 모르겠다	2.748	0.601	a	
	관심이 있는 편이다	2.725	0.595	a	
	관심이 매우 많다	2.650	0.692	a	

* p<0.05 ** p<0.01 *** p<0.001

본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로 평균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의 연구결과를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나는지 평균차이검증을 해본 결과 F값이 2.813으로 유의수준 P<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던칸 검증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도의 결과와 일맥상 통하는 것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무관심한 소비자는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5)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필요도의 평균차이를 알아본 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와 학년에 따라 필요도 점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각 하

위영역별로 평균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표 12>의 연구결과를 보면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인지도에 차이가 나는지 평균차이검증을 해본 결과 F값이 13.126으로 유의수준 P<0.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던칸 검증결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식품영양표시의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도 식품영양표시의 필요도에 차이가 났으며 평균차이검증결과 F값이 15.080으로 유의수준 P<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던칸 검증결과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식품영양표시의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의식수준을 5점 척도로

<표 12> 식품영양표시의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변인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소비자 필요도			
		M	SD	Duncan	F값
건강관심	관심이 전혀 없다	3.350	0.624	a	13.126***
	관심이 없는 편이다	3.151	0.735	a	
	잘 모르겠다	3.571	0.601	b	
	관심이 있는 편이다	3.674	0.595	b	
	관심이 매우 많다	4.165	0.692	c	
학년	1학년	3.642	0.673	a	15.080***
	2학년	3.567	0.635	a	
	3학년	3.763	0.637	a	
	4학년	3.899	0.767	b	

* p<0.05 ** p<0.01 *** p<0.001

살펴본 결과 활용도는 3.13, 인지도는 2.76, 신뢰도는 2.87, 만족도는 2.72, 필요도는 3.69로 나타났다. 즉 식품영양표시의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의식하고 있었으며 만족도가 가장 낮은 평균을 보였다. 활용도의 세부 내용으로 식품구매 시 확인하는 표시 내용에는 유통기한과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식품 종류별로 식품표시 이용정도를 알아본 결과 유가공품류를 구입할 때 가장 신경 써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소별로는 열량과 지방의 정도를 확인하는 경우만 3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식품영양표시를 확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영양정보를 얻기 위해서, 타제품과 비교하기 위해서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3점 이하의 평균 점수를 보였다. 식품영양표시를 잘 확인하지 않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식품영양표시가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식품영양표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식품영양표시가 이해되지 않아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품영양표시를 믿을 수 없어서는 2.17로 매우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인지도의 세부 사항으로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지식수준을 알아본 결과 정답율은 5 문항 중 2.4 문항으로 나타나 50% 이하의 정답율을 보였다.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2.76으로 나온 것과 유사한 수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뢰도는 2.87이 나와 불신하는 정도가 신뢰하는 정도보다 약간 많은 걸로 해석될 수 있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유 기술하게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업자의 부도덕한 상술로 인한 허위광고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의 세부사항으로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기업의 올바른 인식이 4점 이상의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나머지도 모두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 식품영양표시제도를 확대 실시하기 이전에 먼저 소비자의 관심이 재고되어야 하고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정보활용능력을 키워야 하며 관리규정의 완비 및 확충과 담당공무원의 인력확보, 기업의 올바른 인식, 식품영양표시에 대한 계몽,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식품영양표시제도가 필요한 이유로 식품 영양표시를 통해 영양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두고 있으며 다양한 식품의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점을 가장 낮은 이유로 두고 있었다.

표시방법별로 의식 수준을 알아본 결과 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 모두 영양정보표시 방법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건강강조표시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를 볼 때 대학생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식품영양표시방법은 영양정보표시임을 알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활용도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와 성별에 따라, 인지도는 전공과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 학년에 따라, 신뢰도는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만족도는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에 따라, 필요도는 건강에 대한 관심정도와 학년에 따라 점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소비자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2003년도 사업으로 수행되었던 영양표시제도 교육, 홍보 사업의 참여 대상과 참여 기관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교육을 통한 소비자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를 통한 소비자교육 실시는 장단기 전략을 세워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교육청에서 각 산하 학교에 소비자 정보교육의 하나로 식품표시 활용을 위한 소비자교육 안내문을 발송하여 소비자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소비자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홍보가 필수 요소이다. 언론의 협조를 요청하고 성공적인 소비자교육 사례발표회나 토론회, 워크샵 등을 실시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발전 방안도 모색되어질 것이다.

둘째, 영양표시 관련 규정의 재, 개정이 필요하다. 영양성분 표시 내용 중 표시 형식이나 제목, 표시기준이나 영양소 표시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표시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식품표시양식 권고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다양한 표시 방법 중 본 연구결과 소비자들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선호했던 영양정보표시 방법을 좀더 보완하여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식품산업체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기업의 올바른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만족스런 식품영양표시제도의 선행과제로 꼽았다. 그러므로 기업체의 자발적인 식품영양표시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체가 식품표시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영양표시를 위한 분석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고 또한 분석

및 디자인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식약청, 2003). 식품업체의 영양표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영양표시 안내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 배포하며 주기적으로 식품업체 표시 업무 담당자를 위한 교육 기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관련 기관이 협조하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와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필요하다. 식약청 홈페이지에 토론방이나 자유 게시판, 사랑방 등의 이름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및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관련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식품영양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단체, 식품가공업체, 학교, 보건소, 언론기관, 소비자교육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관련된 각 기관의 주체 간 업무 협조 체계와 자료 공유 등 긴밀한 협력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외식업체와 학교급식기관에서도 영양표시를 확대 실시하여 가공식품 구입 시뿐만 아니라 식생활 전반에 걸쳐 영양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 영양 정보 공급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위의 모든 개선 방안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규제 위주보다는 제도 활동에 역점을 두어 실시되어야 한다.

주제어 : 활용도, 인지도, 신뢰도, 만족도, 필요도

참 고 문 헌

- 공기법, 박흥현, 이영남, 이경희(2002). 소비자 정보제공 수단으로서의 식품표시제도 평가 및 발전 방안, *관광산업정보논집*, Vol. 3, 113-150.
- 김동순, 이정원(2002). 가공식품의 영양표시에 대한 중학생과 학부모의 이용 및 인지도 실태,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Vol. 8(3), 301-310.
- 김소영(1991). 영양분석표시 정보형태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노영화(2000). 식품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Vol. 23. 20-38.
- 박혜련, 민영희, 정해량(1995). 식품의 영양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기초조사(II),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Vol 10(3), 175-184.
- 식품의약품안전청(2003).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위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청(2003). 영양표시제도 교육, 홍보사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오혜숙(1998).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 및 인식 조사, *상지대학교 논문집 제19집*, 25-438.
- 이강자, 이윤희(2004). 식품영양표시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이용실태,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Vol. 14(1), 54-63.
- 이경애, 김향숙(2002). 식품표시에 관한 소비자 교육의 효과, *한국조리과학회지*, Vol.18(5), 482-486.
- 이기춘(1999).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문사.
- 이주연(2001). 주부의 영양정보 활용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정(1999). 식품의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현슬, 김향숙(1996). 경기도 북부지역 여성 소비자의 영양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과학회지*, Vol. 5(2), 173-186.
- 장남수(1997). 서울지역 성인의 식품·영양·건강태도와 식품영양표시 활용실태, *한국영양학회지*, Vol. 30(3), 360-369.
- 장순옥(1993). 영양표시 제도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논문집 제10권*, 229-243.
- 장순옥(1997). 시판 포장가공 식품의 영양표시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Vol. 30(1), 100-108.
- 장순옥(1998). 주부들의 식생활 지표와 영양소조절 가공식품의 구매 및 영양표시의 이용, 이해, 신뢰와의 관계, *한국영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 Vol. 31(9), 1571-1571.
- 장순옥(1999). 전문가들의 현행 영양표시에 대한 견해와 영양소 함량표시의 개선점, *한국영양학회* 32(4), *추계학술대회초록*, 476-476.
- 장순옥(2000). 영양표시에 대한 주부소비자의 인지, 이용,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Vol. 33(7), 763-773.
- Arset, B.S. Bekmann, E. Bigne, M. Beveridge, T. Bjorndal, K. Bunting, P. Mcdonagh, Mariojous, J. Muir, A. Prothero, L. Reisch, A. Smith, R. Treteras & J. Young(2004). The European Consumer's Understanding and Perceptions of the Organic Food Regime, *British Food Journal*, 106(2), 93-105.
- Cardelo, A.V. & H. Schutz, C. Snow & L. Leshner(2000). Predictors for Food Acceptances, Consumption and Satisfaction in Specific Eating Situatio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11, 201-216.
- Carmire ME.(1996), *B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dietary supplement and food*, Food Technology.
- Chang Hong SO(1997). A Study of the comprehension and

- preference of consumers to four different formats of nutrition label, *Korean Journal Nutrition*, 30(6), 679-689.
- Chang Hong SO(1998). Current status of nutrient fortification in processed foods and nutrition labeling, *Journal of Korean dietet Assoc*, 4(2), 160-167.
- Chang NS.(1996). Changes in dietary habits of adults with middle and upper income levels in Seoul, *Korean Journal of Nutrition*, 29(5), 547-558.
- Conner, D.S.(2002). The Organic Label and Sustainable Agriculture: Consumer Preferences and Values, Cornell University.
- Crane, N. T., Behlen, P.M., Yetley, E.A., Vandervee, J.E.,(1990). Nutrition labeling of foods, Aglobal perspective. *Nutrition Today*, 25, 28-35.
- Crutchfield, S.F. Kuchler & J. N. Variyan(2001). The Economic Benefits of Nutrition Labeling: A Case Study for Fresh Meat and Poultry Products, *Journal of Consumer Policy*, 24, 185-207.
- Eldridge A.L. Sheehan E.T.(1994). Food supplement use and related beliefs: Survey of Community College Student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26, 259-265.
- FDA(2002). Food labeling warning and notice statement, <http://cfsan.fda.gov>.
- Garretson, J.A. & S. Burton(2001). Effects of Nutrition Facts Panel Values, Nutrition Claims and Health Claims on Consumer Attitudes, Perceptions of Disease-Related Risks and Trust, *Journal of Public Policy & Marketing*, 19(2), 213-227.
- Gelger CH Wyse BW. Parent CRM, Hansen RG.(1991). Nutrition label in bar graph format deemed most useful for consumer purchase decision using adaptive conjoint analysis, *Jam Diet Assoc*, 91, 800-807.
- Glanz. K.(1993). Views of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A Survey of Nutrition Education and Consumer Behavior Professional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Vol.25, No.5.
- Golan, E.F. Kuchler & L. Mitchell(2001). Economics of Food Labeling, *Journal of Consumer Policy*, 24, 117-184.
- Gourlie KE.(1995). Food labeling : A Canadian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Nuri Rev*, 53(4), 103-105.
- Kim HS, Baik SJ, Lee KA(1999). Consumer's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Food Labels. *Journal of Korean Soc. Food Science*. *Nutrition* 28: 948-953.
- Marietta A.B., Welshimer K.J., Anderson S.I.(1990),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regarding the 1990 Nutrition labeling Education Act food labels, *Jam Diet Assoc*, 99(4), 445-449.
- Pennington JAT, Vanderveen JE.(1988). Descriptive Terms for Foods with Special Dietary Characteristic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20(1), 30-32.
- Rudd J.(1989). Consumer Response to Calorie Base Variations on the Graphical Nutrient Density Food Label,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21, 259-264.
- Russo J, Staelin R, Nolan CA, Russel GJ, Metcalf BL.(1986). Nutrition Information in the Supermarke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3(1), 48-70.
- Worsley H, Crawford D.(1987). Nutrition Awareness, *Health Practices and Dietary Supplementation*, 41, 117-197.

(2007. 04. 09 접수; 2007. 07. 19 채택)